지역 소식통

고창군, 설 연휴 응급진료 체계 강화로 공백 최소화

고창군이 설 연휴(21~24일) 진료공백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창군 의사회, 약사회 등 의료 관련단체 협조로 응급진료체계를 강화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고창종합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고창군보건소와 10개 지역 보건진료소도 연휴 4일간 일정별로 진료가 정상 운영된다. 또한 일반 의료기관과 약국은 신청 일자별 문여는 병·의원 4개소와 약국 6개소가 지정 운영되어 연휴기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로 진료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고창군보건소는 의사 및 행정 인력으로 구성된 응급진료상황실을 편성·운영해 일반환자 진료 및 대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라북도 및 보건복지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설 연휴기간 중 진료가능한 병·의원과 약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군(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고창군=김영식 기자

고창군 식품위생·안전 관리 중요성 거리캠페인

고창군이 지난 13일 고창군 식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30여명과 함께 고창읍성 일원에서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의 중요성 홍보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조리기구 구분 사용하기 등 개인 위생수칙에 대하여 홍보했다.

식품접객업소는 '깨끗하게 유별나게' 위생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올바른 식재료 보관 방법으로 냉장식품은 5℃이하, 냉동식품은 ?18℃이하 보관 온도를 철저히 지켜 2023년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없는 한해를 기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주택난 해소 나서

공동주택 공급 올 가을 398호 입주… 집값 안정·인구유출 억제·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민선 8기 고창군이 공동주택 공급을 확대해 인구유출을 막고, 주택난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최근 2~3년새 지역내 신규 아파트 신축이 없었던 만큼,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 이사·가전업계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르면 올 가을 고창지역에 LH임대주택 398호의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고창읍 율계지구 고령자 복지주택 128호를 비롯해, 고수면 150호, 무장면 120호가 입주한다.

또 여러 민간기업에서도 공동주택 건설·분양계획을 세우고 있다. 3월에는 고창읍 현대아파트 앞쪽의 광신주택(260호), 터미널 회전교차로 주변의 읍내리 주상복합(56호)도 공사를 시작해 바로 선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택 내부공사에 들어간 환동해 도시형 생활주택(리안채 주변)은 6월 준공 후 바로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민간업체가 고창읍 덕산리 일원에 128호, 흥덕면 흥덕리 일원에 152호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군과 협의중에 있다.

아울러, 터미널 일원에도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해 전국 첫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2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이 계획돼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공동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을 꾀하고, 인구 유출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며 "고령자와 청년·신혼부부가 고창에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군민행복·활력고창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임신·출산 모자보건사업 확대

올해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사업 시행

부안군은 임신과 출산의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 출산·육아를 장려하고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3년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올해부터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신청일 기준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가정이면서 난임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넘긴 대상자에게 최대 2회까지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20만~110만원으로 시술종류별로 시술금액을 차등지원하며,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국가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자에게 신선배아(9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7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5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이 상향되어 지원 대상자(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 및 저소득다자녀 가구/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는 기저귀 월 8만원, 조제분유 월 1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 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경우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출생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관련 지원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출생축하금은 출생일 기준 보호자(부·모)가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지원 대상 자녀의 출생신고를 부안군에 한 경우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1,000만원을 최대 3년간 4~5회 분할지급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은 영아의 주소지가 부안군일 때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외에도, 임산부 산전·기형아검사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비 지원 및 산후조리 한약제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자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군민들이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김형우 정읍시 부시장, 사회복지시설 위문

정읍시 김형우 부시장이 17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단체를 찾아 명절 인사를 나누며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위문은 명절을 앞두고 복지시설 이용자들을 위로·격려하고,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시설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형우 부시장은 정우면 소재 느티나무(노인 생활시설)와 북면 행복한 집(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을 방문해 백미와 치약, 세제 등 120만원 상당의 위문 물품을 전달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또한, 시설을 둘러보며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기에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시설 관계자로부터 시설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형우 부시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시설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소외되는 사람 없이 정읍시민 모두가 정이 넘치는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시장은 지난 2일 전라북도 인사발령에 따라 정읍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지방기술고시 2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김 부시장은 전라북도 안전정책관, 임실군 부군수, 전북 건설교통국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정읍=김대환 기자

"생생카드로 복지 혜택 누리세요"

정읍시, 여성농업인 2월 말까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정읍시가 올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을 시작하며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여가 지원에 나선다.

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달 28일까지 2023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구·생생바우처카드)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사업은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 농업인에게 건강,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반복적인 농작업과 가사노동으로부터 만성질환 예방 등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만 20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이다.

지난해까지는 가구당 농지 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인 농가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가구당 농지 소유 면적 제한을 없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은 2월 28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생생카드는 농협 지점을 통해 발급받게 되며 1인당 15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을 지원한다. 카드는 관광여행사, 스포츠용품, 미용실, 화장품점, 영화관, 찜질방, 수영장, 서점, 사진관, 안경점 등 전 업종(단, 의료기관 및 유흥, 사행성 관련 업종 등 제외)에서 사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 농어업인의 농부병인 관절염·만성질환 예방 치료와 낙후된 문화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열악한 농업·농촌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치아 결손 어르신 의치 시술비 무료 지원

정읍시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시술비를 무료로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1,800만원을 편성했으며, 어르신 1인당 최소 62,800원부터 최대 17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다.

단, 이전에 보건소에서 노인 의치 시술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치과의원에서 7년 이내 건강보험 적용자로 지원받은 경우, 구강 검진 후 틀니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전신 건강과 구강 상태를 1차 검진한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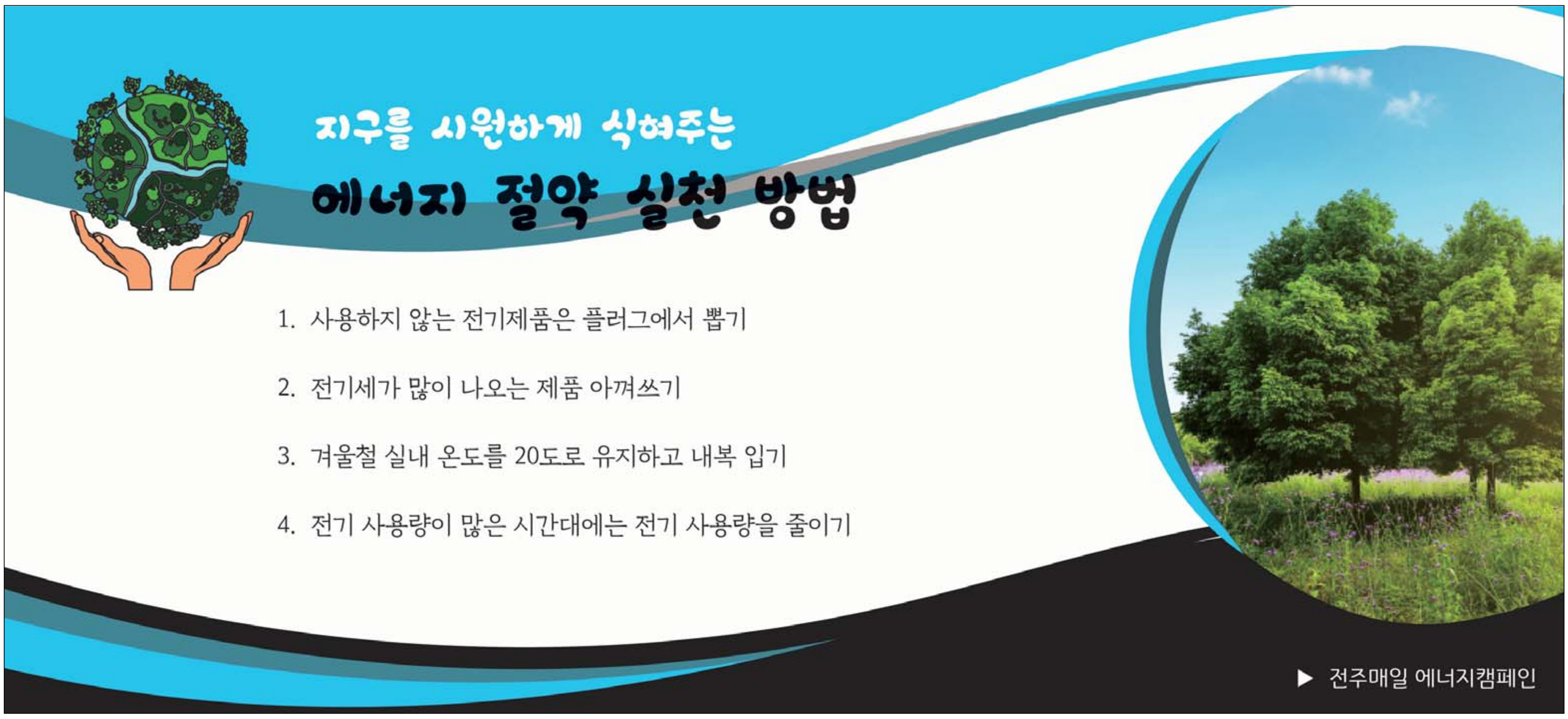
선정된 대상자는 구강 보건교육을 받은 후 희망하는 지역 내 31개소 협력 치과의원에서 무료로 의치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5년간 사후관리와 사후관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총 1,768명의 치아 결손 어르신에게 의치 제작, 시술, 사후관리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구강 기능 회복에 힘써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마실공영주차장 설맞이 무료 개방

부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0일 9시부터 25일 9시까지 6일간 부안상설시장에 위치한 부안마실공영주차장(부안읍 번영로 121)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기존 부안마실공영주차장은 요금은 최초 2시간까지 무료이며, 이후 10분마다 1,000원이 추가되어 1일 최대 3만원의 요금이 부과되었으나, 이번 설 명절 기간은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 및 시장활성화를 위해 무료개방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주차장 무료개방이 군민들과 귀성객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상권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부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